

예수는 청년이었다

마가복음으로 만나는 '청년예수'

YWCA 청년 영성훈련 교재



I 권 8000원
II 권 9000원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판매 중

30세부터 33세까지 예수
무엇을 꿈꾸었는가
무엇을 고민했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거룩한 독서'로 전하는
청년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만나다

문의 도서출판 나눔사 (02)659-3429
※교회나 단체는 특가 구입 가능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선지방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기획

신고리 5·6호기 운명 걸린 공론화
목사님은 전기 안 쓰십니까

인터뷰

원전 그렇게 안전하면 광화문이나 한강에 세워라

칼럼

일본은 원전대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성평등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상담 행동하는 소비자운동에서 인권운동으로

소비자운동은 YWCA가 처음으로 시작한 대표적인 운동이다. 소비자운동이라고 하면 YWCA가 떠오를 만큼 우리 생활 전반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다.

YWCA 소비자운동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국산애용운동에서 불씨가 피어나 1964년 서울YWCA 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서울YWCA는 사회문제부에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소비자들로부터 피해고발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1968년 4월 서울YWCA 소비자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의 소비자상담 기구였다. 1970년 1월에는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했다. 전국에서 소비자교육, 캠페인, 연구조사, 상품검사와 모니터링을 주도하며 소비자보호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1980년대부터는 환경운동으로 소비자운동을 펼쳐나갔다. 환경오염 기업제품 사용 안하기,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종량제 운동, 합성세제 정량사용 캠페인, 장바구니 보급운동 등에 앞장섰다. '아나바다 운동'을 최초로 전개하면서 국민들이 손쉽게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직접 종이컵 분리 수거통을 제작해 기업, 대학교, 교회 등에 나눠주고 시민운동으로 확산했다. 1992년 '녹색휴가보내기 캠페인'은 쓰레기양을 줄이고 건전 휴가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소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997년 13만 건의 소비자고발을 처리했다. 국민건강과 관련한 수입농산물 안전성 점검, 우리농산물 직거래운동에 이어 농민·도시인이 함께하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펼쳐 공동체 의식을 높였다.

YWCA 운동의 전천후적인 출발이 된 소비자운동은 소비자 고발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운동으로, 생명·생태·평화의 가치에 근거를 둔 소비자 환경운동과 공동체운동으로 발전했다.



1972년 제1회 전국소비자보호 세미나



1978년 서울YWCA가 대천해수욕장에서 운영한 소비자 이동고발센터



소비자운동을 환경운동으로 실천하다



소비자단체 옥시 규탄 기자회견

2017.9 한국YWCA



표지이야기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이 9월 9일 주최한 울산집중 전국대회에 참여한 YWCA 회원들

2017년 10월 주요일정

10월 16일~20일
YWCA 중견실무자 해외연수

10월 20일
아이돌봄직종 NCS개발 최종보고회

10월 26일~28일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10월 28일
대학·청년Y 북부지역 Y청년 열린아카데미

제53권 제7호 통권 543호
2017년 9월 20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성경
조하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문윤희·손지수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탈핵 '국민의 결정'이 옳다 | 김영자
- 05 **말씀 묵상** 경쟁의 그늘 | 안선희
- 기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06 **기획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YWCA 긴급간담회 | 변남순
- 08 **기획②** 에너지 전환과 교회의 역할 | 이진형
- 10 **기획③** YWCA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 캠페인 | 편집실
- 13 **기획④** 청소년 탈핵을 외치다 | 박상현
- 14 **대담** 하선규 YWCA 탈핵운동대사를 만나다 | 신미희
- 16 **인터뷰** 부산일보 '클린에너지' 특별취재팀 | 신미희·문윤희·손지수
- 18 **이슈** 한국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 일본 원전 이야기 | 다케쓰구 미노루
- 20 **현장** 2017 히로시마 평화순례 참가기 | 백보람
- 22 **청년** '거룩한 독서'로 만나는 <청년예수> | 이천진
- 24 **이달의 현장①** Y-틴 전국회원대회 "인권에 나이는 없습니다" | 천유란
- 26 **이달의 현장②**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 '우리가 만든 역대급 대회' | 문윤희
- 28 **이달의 현장③** 씽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뽀뽀' 오픈 | 홍현정
- 30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평택YWCA 늘해랑학교 | 정혜근
- 32 **성평등** 세계 수준의 성평등 헌법으로 바꾸자 | 양선희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
- 35 **원로에게 듣는다** 이종경·김은경 연합회 위원 | 김수진
-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예수께 의탁한 백년의 삶 | 백수경
- 40 **연합회 소식**
- 43 **회원YWCA 소식**

탈핵, '국민의 결정'이 옳다

김영자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탈핵생명위원




YWCA는 2014년부터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불의 날 탈핵캠페인'을 열고 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반대를 외치며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등을 촉구해왔다. 9월 12일, YWCA 탈핵캠페인은 174차를 맞았다.

올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탈원전 정책을 공약한 새 정부 출범으로 탈핵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 폐기와 탈핵시대를 선언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정부는 건설중단 여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대 3개월간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대표참여단 결정으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자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전문가 아닌 시민이 뭘 아냐? 석 달 만에 무슨 공론화냐" 등이 그들의 주장이다. 원전은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과학기술 측면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철학 등의 쟁점이 섞여 있다. 예측 불허의 원전사고는 방사성 물질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한국은 원전밀집도 세계 최고의 나라다. 원전을 계속 늘릴 지 줄일 지, 안전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받을 지는 국민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결정을 이뤄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독일 정부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꾸렸다.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했고, 종교인과 철학자도 있었다. 에너지 비전문가 17명이 모여 8주 만에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동안 일방적인 원전홍보에 노출되어 있던 국민들이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숙고할 수 있는 장이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면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된다면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전한 원전은 없다. 탈핵은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평화운동이요 생명운동이다. 새로운 세대가 앞선 세대가 쓰고 버린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YWCA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해 3개월의 특별기도 기간을 정했다. 탈핵운동은 생명평화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실천으로, 기독교는 탈핵인식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탈핵운동을 펼쳐나가는 전국 YWCA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아멘." 

경쟁의 그늘

안선희

목사·이화여대 교수



요한복음 5장 1~9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양의 문' 곁에 베드자다라는 못에 주랑이 다섯이 있어 많은 환자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새번역 성경)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직위나 직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경쟁을 통해 보상을 배분합니다. 꽤나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경쟁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능력과 재력을 갖춘 사회적 강자와 그렇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경쟁하면 약자는 불리합니다.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경합을 부추기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베드자다 연못 곁에 있던 양의 문은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드나드는 지저분한 곳입니다. 다섯 개 주랑은 많은 환자들이 연못 가까이에서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를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연못에 먼저 들어간 병자가 고침 받는 상황은 경쟁하는 오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살벌한 경쟁 속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신세한탄을 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재빠르게 연못 안으로 넣어주기보다 연못 밖에서 고쳐주기만 하십니다.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송국현씨를 아는지요? 지체장애인 국현씨는 뇌출혈로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도 쓸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장애인 시설에 27년간 맡겼고 선들의 나이에 장애인 단체의 도움으로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선 밥과 빨래, 목욕도 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 조종은 물론 수동휠체어를 밀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는 1·2급 장애인들만 가능했고 3급인 국현씨는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국현씨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고 몸 3분의 1이 까맣게 탔습니다. 결국 나흘 뒤 숨을 거뒀습니다.

만일 장애등급제가 없었다면 국현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초기 진화하거나 집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장애등급제는 부족한 장애인복지 예산을 나눠 갖기 위해 장애인들끼리 경쟁시키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오고 싶은 장애인들은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적응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가 장애인에게 적응하며 그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야만적인 사회에 '아니오'를 외치는 참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이영희 교수, 김혜정 위원, 원영희 탈핵생명위원장, 하선규 탈핵운동대사(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공론화 3개월’에 달렸다

대선을 앞둔 4월 YWCA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에서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탈원전 공약을 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YWCA는 탈핵운동을 그만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다들 웃는 가운데 내심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덕분인지 대한민국 최초로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공약 실현은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절차나 권한을 놓고 8월까지도 혼선을 빚었다. 공론화위원회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나중에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변경) 결정으로 중단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도 바뀌었다. 시민참여단 결정은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반영되어 정부로 제출되고, 다시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2014년부터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YWCA는 8월 2일(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낯설지만 한 ‘공론화’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다. 한국YWCA연합회 강당은 전국 각지에서 온 회원YWCA 담당자들로 꽉 찼고, 좌석

을 더 마련해야 했다.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주제발표는 세 가지였다.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공론화 쟁점’을, 김혜정 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전문위원이 ‘대응전략’을, 하선규 연합회 탈핵운동대사는 ‘YWCA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예상보다 공론화 내용은 어렵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는 3개월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YWCA의 집중적인 공론화 대응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단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하게 한 다음 공적 판단을 도출하는 공공참여 방법인 공론조사는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방식이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체계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영희 교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촛불 시민혁명이 이뤄낸 성과”라면서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서 국민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해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시민대표참여단체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한 것은 유례없는 시민권력의 탄생이라는 초기 평가는 정부 방침이 변하면서 무색해졌다. 그러나

기존 시민참여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들러리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원전 가동 이후 40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시민참여 탈핵담론의 장을 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게 된 성과는 분명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는 ‘시민들이 숙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주어도 되는가,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론화는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공론화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꼽혔다.

원전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원전처럼 갈등이 첨예하고 위험한 사안은 전력을 소비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자 포괄적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원전은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2011년 독일 에너지윤리위원회가 탈원전을 결정한 핵심 이유는 ‘삶의 가치’였다. 인간과 원전의 공존이 가능한가를 놓고 고심한 독일은 ‘원전은 안전할 때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형성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이야말로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공론화의 당면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지속가능한 탈핵담론 공간의 확대에 있다. 공론화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으며 원전으로 인

한 사고는 그 누구의 이익과 손해를 말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론화에 적극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뜻을 모아 의견을 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YWCA, 지역사회 탈핵의 주역이 되자

수원지역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비슷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광고상수원 보호와 환경정비, 개발제한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와 자문위원회, 광고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사회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수원YWCA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는데 참여하고 있다.

사실 공론화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확정한다는 것은 당초 ‘백지화’ 대선공약의 후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국민들에게 탈핵담론을 전달하면서 대안에너지 체계를 생각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토론할 수 있는 숙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국 52개 YWCA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시민여론을 지역에 확산하는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에 의거해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탈핵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공론화가 마무리된 뒤 시민이 이끌어낸 역사적인 공론화 과정을 웃으며 이야기하는 때가 오길 기대한다. 



긴급간담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목사님은 전기 안 쓰십니까

이진형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집행위원장

“그럼 목사님은 전기 안 쓰십니까?”

핵발전소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핵발전소가 참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도 전기를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딱딱하니 힘이 빠지는 말인 동시에 높고 단단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탈핵, 에너지 전환 운동은 단순히 논리적, 합리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일이 아니라 더 깊은 곳, 우리들의 마음 속 요지부동의 ‘어쩔 수 없음’과 맞서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어쩔 수 없음’과 맞섰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못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라셨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창조세계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못하고 못 생명들이 다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창조된 세계를 독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합니다. 창조세계에 무자비하게 사용된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리스도라 불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성서를 읽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음’의 상황 속으로 불쑥 들어가십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군사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억누르지만 모두 ‘어쩔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병든 이들이 정말 죄인인지, 가난한 이들이 왜 불행한지, 의로운 이들이 계속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쩔 수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십자가의 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십니다. ‘어쩔 수 없음’ 속에서 ‘어쩔 수 없음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지요.

핵 발전을 넘어서는 길목

핵발전은 창조세계에 폭력을 가해 얻는 에너지입니다. 자연 상태로는 일어나지 않는 원자핵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핵분열을 이용해서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핵에너지는 폭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불안정하고 유독한 핵쓰레기를 만들어 냅니다. 핵에너지가 송전탑을 따라 지나가는 곳마다, 전달되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이 뒤따릅니다.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한 우리는 이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을 얻기 위한 탐욕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창조세계에 사용된 폭력은 결국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핵발전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



우리사회 '에너지 전환' 길목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따르는 이들은 이 ‘어쩔 수 없는 핵발전’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바로 핵발전이란 어쩔 수 없음을 넘어서는 길목입니다. 폭력적인 죽음의 에너지인 핵에너지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평화롭고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로의 전환의 길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발전원으로 따져보면 핵발전이 1/3 정도, 나머지 대부분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입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목재를 태워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빼고, 햇빛과 바람과 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재생에너지’는 간신히 1/50를 넘습니다.

‘에너지 전환’, 교회가 먼저 보여주자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감축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에 있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발전용 연료세를 체계로 조정하는 에너지 세계개편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이어질 텐데, 세계개편과 전기요금 조정이야말로 에너



4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탈핵캠페인에 참석한 이진형 목사(오른쪽)

지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기에 이 길목에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어쩔 수 없다’는 이들과 ‘어쩔 수 없지 않다’는 이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일어날 겁니다.

이 길목에서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핵발전은 기독교 신앙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교회 지붕, 교인들의 가정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절제와 청빈의 전통을 되살리는 ‘교회 절전소’를 세워서 냉난방기 사용을 절제하는 것은 물론 네온 십자가를 LED 십자가로 교체하고, 상징적으로 음향과 조명의 전원을 끄고 전기 없는 예배를 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가정에서 전기 사용을 줄여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핵발전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하늘과 바람과 물로 만드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에너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지 않다’는 희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참, 저도 전기 씩니다. 하지만 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전기를 소중하게 아껴서 쓰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듯 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면서 YWCA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YWCA는 8월 2일(수) 공론화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열고, YWCA 실천활동으로 전단지 10만부와 카드집지 1만부를 제작해 교회 등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전국동시 정오기도와 공동현수막 설치, 탈핵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YWCA는 9월 9일(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주최한 울산집중 전국대회에 회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부산YWCA는 8월 31일(목) 부산·울산·경남 탈핵연대가 울산시 간절곶 주차장에서 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축구 결의대회(오른쪽 사진)에 동부지역 회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9.9(토) 울산집중 전국대회



한국YWCA연합회 9.12(화) 한국YWCA회관 앞



군산직할지부 8.29(화) 군산청소년수련관 앞



거제YWCA 9.5(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경주YWCA 9.12(화) 경주YWCA 앞



고양YWCA 9.6(수) 주엽역 앞



광주YWCA 8.29(화) 동구 금남로4가역



남양주YWCA 9.8(금) 평내주민자치센터 앞



남원YWCA 9.2(토) 남원YWCA회관 앞



논산YWCA 9.7(목) 백제병원 사거리



대구YWCA 8.29(화) 대구백화점 앞



대전YWCA 8.21(월) 대전시청 앞



동해YWCA 9.9(토) 동해시청 잔디밭



마산YWCA 8.17(목) 상남동



목포YWCA 8.22(화) 산정능공단지



부산YWCA 8.29(화) 해운대 해수욕장



사천YWCA 9.5(화) 사천YWCA 앞



서귀포YWCA 9.9(토) 서귀포시평생학습축제장



서울YWCA 9.1(화) 서울YWCA 앞



성남YWCA 9.11(월) 아탑역광장



수원YWCA 8.23(수)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순천YWCA 8.29(화) 연향동 패션의거리



안양YWCA 8.22(화) 평촌중앙공원



여수YWCA 8.22(화) 부영3단지 앞



울산YWCA 9.5(화) 무거삼거리



익산YWCA 8.26(화) 익산YWCA회관 앞



전주YWCA 9.9(토) 전주롯데백화점 앞



진주YWCA 8.31(목) 중앙시장 일대



진해YWCA 8.17(목) 상남동, 창원시청



창원YWCA 9.5(화) 상남동 분수광장



천안YWCA 8.24(목) 천안YWCA 앞



청주YWCA 8.29(화) 성안길



춘천YWCA 8.29(화) 명동 입구



통영YWCA 9.7(목) 충무대파트 앞



파주YWCA 8.30(수) 파주시청 사거리



하남YWCA 9.6(수) 신장로 일대



10만년짜리 핵폐기물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박성현

한가람고 2학년

YWCA는 방학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탈핵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엔 32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여름방학 처음 YWCA를 찾았던 박성현군은 방학마다 탈핵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7월 27일(목)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식에서 박군이 전한 미래세대의 탈핵의지를 신는다.



탈핵캠페인 현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박성현입니다.

제가 원전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방학이었습니다. YWCA 청소년 탈핵 캠페인에 처음 참여했다가 우리나라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소가 위험한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방학마다 탈핵캠페인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로 핵의 위험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짓는다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으려는 신고리 5·6호기는 핵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된 부산·울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60여개 활성단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반경 8km 이내 해양단층은 조사하지도 않았습니까. 경주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진 지금, 이 불안한 지역에 핵발전소를 더 짓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내세워 핵발전소를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편리함을 위해 다가올 미래를 망쳤습니다. 우리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대한 예의를 말하고 싶습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고, 그 위험한 핵폐기물은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60년간 운영되는데, 그 핵폐기물을 또 10만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으므로써 최대한 짐을 덜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합니다. 이미 넘쳐나는 핵폐기물에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워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짐을 미래세대에 떠넘겼습니다.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을 우리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아주세요.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핵발전소, 핵폐기물, 우리는 거부한다!"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더라

사회 **김혜정** 한국YWCA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전문위원
글·사진 **신미희** 홍보출판팀 부장



거대 원전세력에 맞서 탈핵의 최전선을 지키는 두 사람이 만났다. YWCA 최초의 운동대사로 임명된 하선규 탈핵운동대사(사진 오른쪽)와 김혜정 탈핵생명위원회 전문위원이다. 부산시민운동의 대모로 불리며 50년간 YWCA를 지켜온 하선규 대사, 30년간 오로지 탈핵의 한길로 달려온 김혜정 탈핵운동가. YWCA 탈핵운동에 불을 지핀 하선규 대사는 부산YWCA 사무총장, 회장을 지내며 전국 52개 회원YWCA가 탈핵운동에 뛰어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원전 지지자’ 하선규의 변신

YWCA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내성적인 나를 Y-틴에 데리고 갔다. 처음엔 YMCA 남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며 모든 게 낯설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Y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되었다. 전국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도력의 변화를 겪었다. 부산YWCA 간사 분이 일해보자고 제안했다. 1966년 간사로 들어왔다. 월급은 적었고, 일은 힘들었다. 그만뒀어야겠다고 수없이 생각했지만 실무자로만 40년을 일했다. YWCA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웃음)

하대사님이 탈핵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궁금하다.

1970년대 부산YWCA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분이 찾아오셨다. 피폭자는 물론 2세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계속 대물림되는 무서운 피해였다. 정부에 원폭피해자의 의료혜택 보장과 일본내 치료조치를 건의했다. 여성으로서 생명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다. 먼저 밥상을 지키자고 생각했다.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제안했고, YWCA가 농산물을 모두 팔아주겠다는 무모한 약속까지 했다.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 물과 모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모포 3만장을 마련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원전사고가 우리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 전에는 원전의 위험성을 잘 몰랐다. 원전이 소속된 한국전력 자문위원을 20년간 했는데 원전이 100% 안전하다고 들었다. 부산에는 원전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었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 탈핵강연을 들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YWCA 탈핵운동의 시작을 얘기해달라.

부산YWCA 활동가들과 함께 김익중 교수 연구실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분도 원래는 탈핵 전문가가 아니었다. 경주에 살다보니 원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김익중 교수를 활동가 교육, 이사 모임, 동부지역위원회, 전국사무총장협의회에 계속 모셨다. 그러다보니 서부, 중부, 북부에서도 요청했다. 2014년 한국YWCA는 정기총회에서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했다.



하선규 대사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무대에 올랐다.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가장 걱정

YWCA뿐 아니라 부산을 탈핵운동 지역으로 바꿔놓았다.

부산지역 목사모임에서도 탈핵운동을 제안하고, 부산시장 선거공약에 탈핵을 넣도록 했다. 고향이 밀양인데 송전탑 반대현장에 가니 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원전은 반경 30km 부산, 울산, 경남 380만명 모두의 문제였다. 부산지역 연대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다른 단체들과 힘을 합쳐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 YWCA가 10만 서명을 해보자고 했다. 한 달만에 10만명을 모았다. 2015년 2월 YWCA 정기총회를 부산에서 열었는데, 서병수 시장에게 직접 서명지 박스를 전했다. 다음날 고리1호기 앞에서 폐쇄촉구 기도회를 열었다. 이때부터 YWCA 탈핵운동이 본격화되었다. YWCA가 나서면서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부산지역이 하나가 되었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언론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시민대표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섰을 때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꼭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수고한 시민운동가, 탈핵운동가들의 노력도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하니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문화제에 참석한 하선규 대사

도 무언가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 생명을 상징하는 작은 나무를 무대에서 전달하자고 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연합회가 없었다면 YWCA 탈핵운동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YWCA는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이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탈핵은 국민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YWCA가 탈핵운동에 더욱 무게를 두고 운동하게 하신 것 같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시민 공론화로 결정하는 게 맞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원전사고가 생긴 게 아니다. 에너지 정책에 국민의 철학이 담겨야 한다.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가장 걱정된다. 탈핵을 지지하던 분들도 조선일보를 보면 헛갈린다고 한다. 그럴 때 부산일보도 함께 읽어보라고 한다. 그동안 언론이 제 기능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충분히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은 사양사업이고, 재생에너지가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이다.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YWCA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원전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면 광화문이나 한강에 세워라

취재·글 **신미희·문윤희·손지수** 홍보출판팀
사진 **정중희** 부산일보 사진부 기자

부산일보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일부 언론의 탈원전정책 비판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방적인 찬핵 공세를 넘어 왜곡, 거짓 보도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 판단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보도로 눈길을 끄는 신문이 있다. 부산지역 대표 일간지 부산일보다. 지난해 '원전공포, 자식에게도 물려주지겠습니까'를 시작으로 올해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 기획시리즈를 보도하며 시민안전을 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대안을 찾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선 국면에서 탈핵이 전국적 의제가 되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부산일보는 어떻게 탈핵신문이 되었을까. 8월 31일(목) 부산일보를 찾았다. 줄 맞춘 깨끗한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온갖 책과 신문, 자료 더미에 뒤덮인 통상의 편집국 모습이 아니었다. 이병철 편집국장의 취임 일성이 '깨끗한 편집국 만들기'였다고 한다.

특별취재팀 팀장 김마선 기자, 환경담당 이자영 기자, 원전밀집 지역인 해운대·기장 담당 황석하 기자가 차례로 들어왔다. 김백상, 민소영 기자는 일정상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다. 회의 콘셉트로 잠시 사진을 찍자 하니 정말 어색해했다. 요즘 부산일보가 '탈핵신문'으로 불린다고 하니, 이자영 기자의 눈이 더 동그해졌다. 언제부터 탈핵, 에너지 전환을 주요하게 다루게 되었는지 물었다.

“지난해 11월 편집국장이 부임하면서 신년기획을 고민하던 차에 고리원전 1호기가 올해 영구폐로 되는 계기도 있으니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해보자고 아이디어가 나왔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력 발전으로 2020년 이후엔 단가도 싸진다는 전망이 있다. 미래 지향적인 뜻으로 '클린에너지'라는 말을 쓰게 됐다. 부산시도 '클린에너지 원년'을 선포하면서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김마선)

부산일보가 원전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2013년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올라간다. 관련 이슈를 많이 다루면서 원전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마침 한국 원전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구속되었다. 비밀에 갇혀 있던 원전을 뜯어보니 비리온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객관적인 시각이 생겼다.

“원전은 지역이 희생과 위험을 떠안는 구조다. 고리1호기부터 계속 부산 지역에 원전을 지었다. 해운대·기장은 원전 민원이 많다.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피해가 있다. 부산시가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서 공급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했다. 밀양 등 주변 송전문제로 인한 마찰도 크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문제인데 부산으로 사용후핵연료봉을 옮긴다고 한다. 에너지 공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역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게 정당한가.”(황석하)

7월엔 에너지 전환의 길을 걷고 있는 해외사례를 집



부산일보 특별취재팀 황석하, 이자영, 김마선(왼쪽부터) 기자가 탈핵 기사를 상의하고 있다.



원전 없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 신문과 원전이 밀집한 부산에 있는 부산일보 보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중 조명했다. 황석하 기자가 독일 출장을 떠난 사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이 발효되었다. 김마선 팀장이 어떻게든 취재를 해오라고 했다. 덴마크로 넘어가면서 독일의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 메일을 보냈다. 독일의 탈핵정책을 결정한 윤리위원회에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기사는 그렇게 탄생했다.

원전 없는 '서울' 신문, 원전 밀집한 부산일보

언론 보도태도에 관한 문제도 짚었다. 특별취재팀은 정파적, 정치적 문제로 생각했다.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에 이만한 소재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수원의 수십억짜리 광고와 협찬의 위력도 무시하기 어렵다. 더불어 수도권 언론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지적했다.

“중앙지 위주로 팩트가 맞지 않는 탈핵반대 기사들이 양산되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면 한강에 지어라, 신문사 앞 광화문에 지어라'는 댓글이 많았다. 신공항 문제만 보더라도 중앙언론은 밀양에 짓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엔 짜기라도 한 듯 제2의 양양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들 했다.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촌뜨기'로 취급한다. '떼'로 몰려서 원전문제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걸 보면 지역주민으로서 씁쓸하다.”(황석하)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탈원전정책 비판보도는 옹단 폭격마냥 쏟아졌다. 탈핵찬성 여론이 높았던 부산마저

뒤집혔다는 얘기가 들렸다. 부산일보 일각에서 탈핵보도를 접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도 돌았다.

“부산 여론이 크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 원전위험 체감도가 부산이 서울보다 15%포인트 높다. 경주 지진은 부산 시민들에게 충격이었다. 에어컨이 넘어질 뻔했다. 여진도 많았다. 온몸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영화 <관다라> 영향도 있었다.”(김마선)

그래도 독자들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지역일간지로서 시의적절했다고 응원했다. 우호적 반응만 있지는 않다. 이럴 때 힘들지 않느냐고 하니 “부산일보를 많이 봐주시면 된다. 다른 지역에도 배달되니까 많이 봐달라”면서 다들 웃었다.

“YWCA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웃음). 전국에서 6월 7일 신고리 5·6호기 현장에 내려와 탈핵문화제를 열었을 때 지역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다. 기존 집회방식이 아닌 문화제로 뜻을 나눠준 게 좋았다. 여성들은 환경문제나 안전성에 관한 감수성이 높다. YWCA는 여성들이 생활 속 운동으로 탈핵을 확산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이자영)

특별취재팀은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시민참여로 만드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들러리가 되는 에너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일자리가 원전 일자리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산업성 가능성에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은 원전대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케쓰구 미노루
서일본신문 부산 주재기자

후쿠오카에 본사를 둔 서일본신문은 부산일보와 자매결연을 해 매년 기자교류를 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부산 주재기자로 파견된 서일본신문 다케쓰구 미노루 기자는 경제부(에너지, 금융), 도쿄지사(후생노동성, 환경성), 사회부(원전, 지진, 노동) 등에서 일했다. 특히 8년간 원전분야를 취재했는데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 뒤 피해주민의 이주생활을 심층 취재하기도 했다. 한국 원전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는 일부 한국 언론이 일본 원전정책이나 현황을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원전, 54기에서 5기로 줄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대로, 하나씩 폐로하겠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 내용 중 일부다. 내년 준공 예정인 신고리 4호기의 설계수명 60년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의 단계적 축소 계획이다. 당시 기자는 이 같은 내용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계획이 굉장히 현실적이다’고 평가했다.

일본 역시 ‘탈원전’이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원전은 모두 54기였다. 현재 한국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수다. 일본은 이후 노후화 등의 이유로 12기의 폐로를 결정했다. 그밖에도 많은 원전이 중단돼 현재 실제로 가동 중인 것은 5기에 불과하다. 물론 앞으로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단 5기만 운전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특별한 경제, 사회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8월 초 국가의 미래 에너지 계획을 결정하는 일본 정부 회의가 열렸다. 원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큰 주제였다. 그 자리에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장관)은 “현 계획의 기본 골격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의 ‘원전 증설’ 요구를 미래 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

추겠다’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세코 대신의 발언을 통해 일본에서 새롭게 원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이런저런 정치적 문제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아베 정권이 다음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전 문제로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100년의 폭탄’ 경제성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심사를 통과한 기존 원전의 재가동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일본 국민은 극히 드물다. 일본 정부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원전대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런 한국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에서 원전 증설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존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다. 원전을 증설한다면, 그 장소는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니라 기존 원전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원전을 새로 지을 경우 그 원전은 60년 이상 운전하게 된다. 이후 폐로 과정에도 수십 년이 요구된다. 지금부터 다시 100년 동안 ‘새로운 폭탄’을 옆에 두고 생활해야



일부 한국언론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다. 그런 원전 건설을 찬성할 일본인이 몇이나 될까?

일본 중앙 정치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일부는 당장 사고 위험에 맞닥뜨린 지역에 대한 고민보다 원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에서 ‘중앙 대 지방’이라는 일본 원전 문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대립 구도가 드러난다. “원전을 건설하면 그 지역에도 경제적인 혜택이 크다.” 전력회사를 비롯해 원전 증설을 찬성하는 이들의 설득 논리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의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 중앙언론의 반대논리, 발전적 논의 막아

한국은 어떠한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중앙의 언론들은 원전의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한다. ‘탈원전’을 ‘원전을 멈추느냐 마느냐’의 ‘1 아니면 0’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한다. 이런 접근방식은 발전적인 논의를 막고 심지어 대체에너지 추진까지 더디

게 만든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일본과 달리 큰 원전 사고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원전에 대한 저항감 역시 일본보다 낮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폐로 연구시설의 건설, 재생 가능 에너지 우선 설치 등 원전 건설 중단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고 계속 설득한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공통된 추세 속에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력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원전의 필요성 또한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는 탈원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의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미래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다.

‘부끄러운 실수’ 되풀이 말아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백보람

한국YWCA연합회 지역운동국 간사

히로시마 평화순례는 1970년 일본YWCA 반핵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함께 발족한 히로시마위원회가 이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청소년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실시하는 ‘히로시마 연구여행’을 일컫는다. 이번이 47회째로 피폭현장 탐방,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피폭자와의 만남 등 현장견학과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한국, 중국 등에서도 참여해 청소년들이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고 미래 평화를 모색하는 일본YWCA의 평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희생자들

곳곳에서 “아찌이~ 아찌이” 소리가 들려왔다. ‘뎨다’라는 일본 말이다. 숙소를 나서자마자 습하고 뜨거운 히로시마 특유의 날씨가 그대로 전해졌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8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평화의 뿌리를 찾아서’(Roots of Peace from HIROSHIMA)라는 제목의 2017 히로시마 평화순례가 진행됐다. 일본 청소년들과 한국YWCA, 중국YWCA 참가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달던 1945년 미군의 원폭 투하로 수십만 명의 생명들이 죽고

다쳤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금까지 이름조차 찾기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히로시마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를 생각하는 일정이 시작되었다.

현장견학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평화기념자료관, 한국인 피폭자들이 있는 기독교복지센터 등을 방문했다. 원폭이 투하된 곳에 세워진 평화기념공원은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 평화의 불, 평화의 종, 원폭 어린이 동상,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 무명 위령비 등 다양한 추모 상징물과 원폭 투하 잔재가 보존된 원폭돛이 있다. 원자폭탄이 바로 떨어졌던 마을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발굴이 끝나지 않은 채 2미터의 흙을 덮어 공원으로 조



참가자들이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어 '평화의 뿌리'를 만들고 있다.

성됐다. 걸을 때마다 그 아래 묻혀 있는 희생자들의 고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피폭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끔찍했던 당시 참상을 마주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원폭 투하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실감하는 동시에 인간의 끝없고 무지한 탐욕이 일으킨 결과에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 피폭자의 10%를 차지하는 한국인 피폭자 이야기와 재일조선인 현황,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모두 외면당한 한국인 피해자를 돕는데 나선 일본인들의 증언은 한국 참가자 뿐 아니라 일본 청소년들에게도 울림을 주었다.

‘가해자’ 일본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현장견학 이외에도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되었다. 한국과 중국 참가자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평화의 근원’을 발표했다. 우리는 탈핵, 전시성폭력 근절,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핵 없는 세상, 전쟁과 성폭력이 없는 세상, 분단과 대립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YWCA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포함한 전시성폭력 근절 운동,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깨달은 핵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알리고 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탈핵운동은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계층별, 세대별, 성별 격차로 청년여성 ‘백보람’이 부딪히는 장벽을 설명하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한 노력도 평화를 이루는 일임을 강조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YWCA 발표를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탈핵운동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와 세대는 다르지만 평화를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짜임 있는 일정 사이사이마다 조별 워크숍을 진행해서로 생각을 나누고 정리했는데 공통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이었다. 각자 생각하는 평화의 내용이 다르고, 실천하는 방안은 더욱 다양하다. 이번 행사에 오기 전 일상과 삶에서 어떻게 평화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평화는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늘 ‘평화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평화가 이루어질 기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가져온 끔찍한 참상은 보았지만, 전쟁 가해자로서 일본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이뤄지고 있는가. 평화기념자료실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원폭 피해 기록은 전혀 없다. 공원 내 건립제한으로 바깥에 세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도 우여곡절 끝에 공원의 외진 곳으로 겨우 옮겨졌다. 일본은 핵무기가 사라지는 날까지 평화기념공원 ‘평화의 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면서 평화와 상반되는 행보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많은 생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핵문제를 외면할 것인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는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 도대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일까. 지금 내 자리에서의 실천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마태복음 5:9)이 되기 위한 고민은 앞으로 삶에 중요한 과정이자 동기가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한 한국YWCA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백보람 간사(오른쪽)



당시 참상을 증언 중인 한국인 1세대 원폭피해자 김남출 할머니(왼쪽)

‘거룩한 독서’로 만나는 <청년예수>



이천진
한양대학교 교목실장

30세 예수, 청년 정신

예수는 서른 즈음을 살았던 청년이었다. 30세의 청년 예수,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나와 최초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마가복음 1:15) 청년 예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나갔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무관한 저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가는 나라가 아니었다. 지금 여기에(here and now) 도래하는 나라였다. 그래서 청년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다.

청년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억압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참으라고 한 비겁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 여기에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오고 있다고 선포하였다. 성전과 율법을 갖고 종교권력으로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가 아닌,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다고 선포하였다. 청년 예수는 가진 것이 없었다.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다.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적인 영역을 확장시키며 나의 나라를 이루어갔지만, 청년 예수는 공적인 영역을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 이것이 위대한 청년 정신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에서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 성서에 ‘엥기켄(has drawn near)’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서학자 도드(Dodd)는 엥기켄을 ‘왔다’(has come)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서학자 래드(Ladd)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구별하되 분리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가 현재 시작되어 미래의 완성된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달만(Gustaf Dalman)은 ‘나라’ 곧 ‘말쿠트’로 번역된 이 어휘는 유대 문학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될 경우 ‘왕국’이 아니라 항상 ‘왕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토가 아니라, 왕의 주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년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 나라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정의의 나라다.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평화의 나라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창조질서가 보전되는 나라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

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주권을 가질 수 없는 나라다.

YWCA 주체는 ‘청년’

한국YWCA는 1922년 시작했다. 한국YWCA 80년사는 “1922년 3월 27일 제1차 발기회에서 남녀유지 30명을 초청한 가운데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조직을 결의하고”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YWCA는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예수는 청년이었고, 청년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YWCA는 청년이 주체임을 선포하며 시작했다.

한국YWCA 목적문은 YWCA의 주체는 ‘젊은 여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젊은’(young)이라는 개념은 정신의 차원이 아니고, 세대(generation)의 개념이다. 마음이 젊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측정과 분별이 불가능하다. ‘젊은’(young)이라는 개념은 나이가 젊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과 분별이 확실하다. 나이가 젊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젊은 여성이 주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고, 세운다는 것이다. 삼강오륜은 유교에서 기본이 되는 도덕지침이다. <맹자>등문공상에는 “장유는 서열이 있어야”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유유서는 유교의 원리다. 청년 예수는 어린이가 더 큰 사람이라고 하였다. 청년이 큰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마태복음 18:4) 그래서 한국YWCA는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였다.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에서 Young

은 청년을 의미한다. 청년은 젊은 사람이다. YWCA는 청년을 주체로 세우는 곳이다.

YWCA 청년과 ‘청년 예수’의 만남

청년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고뇌하였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마태복음 6:10) 청년 예수가 기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나라였다. 그는 그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이야기했다. 키르케고르는 절망하는 청년들을 향해 “사람들은 환상에 본질적으로 두 개의 형태가 있다는 것, 즉 희망의 환상과 추억의 환상이 있다는 것을



YWCA 청년을 위한 영성훈련 교재 청년예수

간과하고 있다. 젊은이는 희망의 환상을 지니고, 늙은이들은 추억의 환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희망의 환상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청년 예수를 다시 만나고자 한다. 피상적으로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예수의 말씀과 삶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야 청년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YWCA 청년을 위한 영성훈련 교재인 <청년 예수>는 오늘날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서 청년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8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1박2일간 충주청소년수련원에서 'Shouting Y-틴, 인권에 나이는 없습니다'를 슬로건으로 2017 Y-틴 전국회원대회가 열렸다. 25개 회원YWCA에서 146명의 Y-틴이 참가해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도 '국민의 권리'가 있다

YWCA에서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다. 1922년 YWCA가 창립된 배경도 일제강점기 암매한 한국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함이었다. Y-틴은 올해 청소년 인권을 중점운동으로 정했다. 청소년들이 직면한 인권문제 중 참정권, 노동권, 환경권, 성인권에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전국회원대회에 앞서 '청소년 노동권 전국 실태조사'를 기획했다. 전국 18개 지역 청소년 3,694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대면, 행사장 설문 등으로 직접 조사했다.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661명의 절반(42.9%)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노동권 침해를 받았다고 답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임금체불, 과중업무 요구, 성희롱 등 강압적 행위를 당했다는 사례도 많았다. 일하는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처우는 미흡한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는 전국회원대회에서

발표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듣고 직접 써보며 청소년 노동권 문제를 공유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인권

이민아 충주인권센터 대표의 청소년인권 특강으로 전국회원대회가 시작되었다. 이 대표는 "청소년들이 인권의 보편가치를 전달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고 행동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주제별로 생각을 발표하고, 왜 청소년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인지를 나눴다. 참정권은 이태인(대구)·서민정(목포), 노동권은 안은주(진주)·서지수(전주), 성인권은 권순민(충주)·이서영(안양), 환경권은 김수빈(서울)·김한결(인천)이 맡았다.

이어 청소년인권 이슈활동을 진행했다. 참정권은 조각난 전지에 청소년 생각을 쓴 뒤 하나의 원으로 합치

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노동권은 근로계약서 쓰기, 환경권은 업사이클링 DIY체험, 성인권은 영화 '이갈리아의 딸들' 관람 뒤 타인을 돌아보는 역할극으로 권리의 뜻을 새겼다.

청소년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

으로 '붉은 노을'을 개사해 전체 참가자가 참여하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개사는 안산 Y-틴이, 안무는 춘천 Y-틴 댄스동아리가 짰다. 북부지역협의회 200여명은 지역 회원대회가 열린 7월 22일(토)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청소년 참정권' 플래시몹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노동권 "어른들과 똑같이 일하는데 시급이 달라요"

안은주(진주)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등학생은 알바를 구하는 것부터 장벽이 높아요. 연령무관이라고 적혀 있어도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겨우 구해서 들어가면 어른과 똑같이 일해도 시급이 달라요. 야근수당,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분하지만 잘리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다른 곳도 비슷하기에 참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공부나 하지 알바를 한다며 무시당하곤 해요. 청소년도 일할 수 있고, 동일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참정권 "청소년도 국민, 투표권 있어야"

이태인(대구)

참정권이란 국민이 직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자유권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부터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청소년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ECD에서 한국을 빼고 가장 늦게 청소년 참정권이 인정된 일본은 2016년 6월부터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췄습니다. 미국, 독일 등에서 18세는 시장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생각이 미성숙하다'는 틀에 갇혀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환경권 "우리는 안전한 에너지를 원해"

김한결(인천)

전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전제품부터 가로등, 자동차까지 전기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기를 평평 쓰며 생명이 위협받는 생활과 에너지 절약으로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의 약 31%는 핵발전소로부터 옵니다. 핵발전소는 정말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진정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일이 아닐까요?

성인권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해요"

권순민(충주Y)

청소년들은 올바른 성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교육은 청소년 생각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미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지식이 부족하고, 알고 있는 지식마저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을 붙잡고 '성'에 대해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어른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성'이라 하면 무조건 부끄러운 것인 줄 아는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성교육이 갖춰질 수 있을까요?



Y-틴 전국회원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박, 꿀잼, 완전 재밌어!” 청년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충주가 왁자지껄하다. 8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 2박3일간 2017년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가 충주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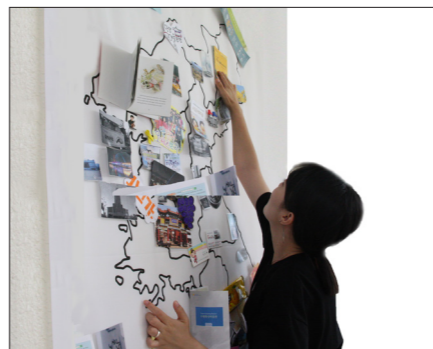
‘지역을 살리는 청년’이란 주제 아래 ‘Wonderful(원·더·풀) : 원하는 지역사회 더불어 풀어가세’를 슬로건으로 YWCA 청년회원 60여명이 모였다. 대학·청년Y 행사에 시큰둥한 평가를 남기곤 했던 오랜 활동경력을 가진 한 청년은 “역대급 회원대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대학·청년Y 6년 공백기 이후 처음 열렸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람책방' 프로그램

이전과 무엇이 다를까

청년들은 “다음에도 와야지”, “너무 좋아”를 연발했다. 지난해는 대학·청년Y를 재건한 주역들의 엄숙한 결의와 책임감의 장이었다면 올해는 2016 대학·청년Y가 닦아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발랄함과 열정이 빛나는 자리였다. YWCA 전국회원대회 참여로 지난해 청년들만의 대회를 열지 못한 아쉬움만큼 기대는 더욱 커졌다.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청년들이 주도했다. 4월 초부터 지역마다 준비회의를 시작했다. ‘지역을 살리는 청년’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운동, 지역 공정여행, 지역내 실천방안 등 지역별로



청년이 대한민국을 지역 상징물로 채우고 있다.

사전 연구모임도 열었다. 중앙임원들은 회원대회 하루 전 연합회에 모여 ‘청년준비사무소’를 열고 밤새 준비를 했다.

회원대회 운영도 청년들이 꾸려나갔다. 모두에게 역할이 주어졌는데, 심지어 ‘박수치는 담당’도 있었다. 청주는 아이스브레이킹, 인천은 사람책방, 거제와 창원은 아침 열기, 대전은 청년 대잔치를 맡았다. 회원YWCA에서 활동한 내용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상시 플라마켓을 열기도 했다. 청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책방’을 꼽았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동기부여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이 주제연구 모임과 활동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람책’이 되었다. 청년들은 각자 원하는 ‘사람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유기묘 인식개선 활동인 수원YWCA ‘길냥아 밥먹자’, 낙동강 녹조현상 실태를 파헤치는 창원YWCA ‘녹조라떼를 아시나요?’, 청주청년YWCA로 독립을 준비하는 청주YWCA ‘일·참·정 :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 YWCA 청년기자단 활동을 소개하는 ‘뷰티인와의’, 청년이 경험한 YWCA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YIME : 와임즈’, YWCA 국제활동을 소개하는 ‘Better Get Ready, Cause I’m Coming!’, YWCA 탈핵운동을 소개하는 ‘모두를 위한 탈핵세상’ 등을 공유했다.

YWCA 청년성 회복의 신호탄

청년들은 관아골 청년몰, 4·19공원, 지현동 카페거리, 재래시장 등을 탐방하며 충주의 문화를 만났다. 폭염에도 청년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충주를 누비며 주제에 맞춰 영상을 촬영했고, 저녁밥까지 거르며 편집했다. 이렇게 만든 영상으로 ‘청년영상제’를 열었는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돋보였다. 4.19혁명(자유), 육박이(코미디), 우리가 하드캐리(패러디), 꿀기는 뉴스(뉴스), 뉴페이스 : 충싸와 아이들(뮤직비디오), 씩씩혜(로맨스), 충주사과(노와르), 유빈이의 안개의치 않은 창업 이야기(다큐) 등 8개 작품이 탄생했다. 조영숙 충주수련



대학·청년Y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장과 김애영 충주YWCA 사무총장은 다채로운 영상으로 충주 곳곳을 담아준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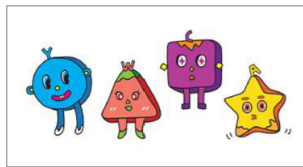
청년들은 올해 활동을 돌아보며 청년이 지역사회를 왜 고민해야 하는지, YWCA 청년으로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고민했다. ‘지역사회’와 ‘청년’의 막연함을 지우기 위해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지역에서 청년운동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충주지역 김인혁(너나들이청년협동조합 대표) 청년활동가는 청년이 지역을 살리고 연대하는 방법을 나눴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대한민국 지도에 붙이며 지역사회를 채워나갔다. 청년들은 지도가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좌절이 가득한 청년세대를 살고 있는 YWCA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일지 모른다. 김수진 연합회 대학·청년Y 간사는 “청년들에게는 무대보다 한바탕 뛰어노는 마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가 역대급이었던 이유도 ‘청년이기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마당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YWCA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기득권에 기죽고 날개를 펼치지 못한 채 회의를 위한 회의에 그쳤던 것은 아닐까. 2017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에서 보았듯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청년들이다. 청년운동은 평가대상이 아니라 YWCA를 살리는 움직임이다. W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은 8월 7일(월) 서울 명동 한국YWCA회관에서 씽크머니 상설교육장인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월 7일, 9일, 14일에 걸쳐 시범수업을 실시했다. 한 번은 영어수업, 두 번은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했다.

'거꾸로 학습법' 체험하는 금융교육



"20대가 된 동글이, 세모, 네모, 별이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입니다. 다양한 금융 가치관을 가진 4명이 독립을 하면서 같은 집에 살게 되었어요. 각자 방에 필요한 가구를 구입하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함께 살게 된 기념으로 도쿄로 6박7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동글이, 세모, 네모, 별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재산으로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서도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펍핀 수업내용에서)

부모님 권유로 씽크머니 상설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Pub-FIN : Public Financial education station)을 찾은 고등학생들이 눈빛이 금세 달라진다. 처음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눈초리로 조용하더니 금융수업이 진행되면서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아이패드로 QR코드를 찍으면 나오는 씽크머니 문제를 맞히고, 가상이지만 돈을 벌며 즐거워

한다. 내가 번 돈으로 평소에 하고 싶던 내방 꾸미기와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어떻게 돈을 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

"문제를 맞히고 번 돈으로 좋은 가구를 샀습니다. 도쿄는 짧게 다녀오는 대신 편안한 방을 꾸미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가구를 선정할 때 가격, 내구성, 디자인을 보고 구입한 뒤 남은 돈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저축상품을 찾아서 저금하는데 썼어요."

"나눔은 북한어린이돕기에 하기로 했어요. 통일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먼저 돕고 싶어요."

소단위, 재밌고, 주도적인, 살아있는 지식

펍핀수업은 T.H.I.N.K를 콘셉트로 기획됐다. T(Twelve 소단위), H(Happy 재미있는), I(Initiative 주도적인), N(New 새로운), K(Knowledge 살아있는 지식)를 뜻



씽크머니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 개소식

한다. '거꾸로 학습법'으로 불리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해 소그룹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2분 가량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사전에 익히도록 하고,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금융습관을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PBL(Problem Based Learning 자기주도 문제해결)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학기간엔 영어수업을 추가해 영어공부를 하면서 금융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8월 시범수업은 씽크머니 금융교육 5개 단원인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설계 중 첫 번째 내용으로 이뤄졌다. 하반기부터는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이나 인근 체험센터와 연계한 금융생활체험 교육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금융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온 싱가포르 국제기술대학(National Technology University)과 협업해 모바일 게임을 활용한 씽크머니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과 정보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등 최신 금융생활 방식을 체험하고, 씽크머니 금융가치관을 적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경제교육에서 금융인성교육으로

씨티재단 후원으로 2006년 시작해 올해로 12년째인 청소년금융교실 씽크머니는 '체험하는' 금융교육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금융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NIE(신분활용) 금융교육, 모의창업,




EBS에 방영된 '펍핀' 수업 모습

재활용 마켓, 경제 역할극, 멘토-멘티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모니터링 등을 시도해왔다.

YWCA 씽크머니는 국내에 금융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던 시기부터 청소년금융교육 개발에 앞장서 자체 교재 발간을 비롯해 교수법과 콘텐츠의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올해 3월 출범한 민간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도 참여해 씽크머니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산하 민간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 한국YWCA, EBS 등 19개 공공·금융·언론기관과 경제·시민단체가 가입해 있다.

YWCA는 9월 6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사례로 씽크머니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그보다 앞선 8월 25일(금) EBS에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 수업이 방영돼 씽크머니 우수성을 알렸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재단 후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받는 기관은 한국YWCA가 유일하다고 한다.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가는 시대 하나님께서 YWCA가 금융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락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씽크머니가 단순한 금융경제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인성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행복한 방학

평택YWCA 늘해랑학교

정혜근

평택YWCA 간사

평택YWCA는 2012년(2011년 겨울방학)부터 매년 방학마다 특수교육대상 청소년과 함께하는 늘해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지원청을 통해 선정된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2주간 다양한 보육, 체험활동을 제공해 사회적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돌봄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올해 여름방학엔 7월 31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진행되었다.

늘 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라

한 해 두 번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평택 YWCA에는 연중 제일 긴장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 다가온다. 특수교육대상 청소년과 함께하는 늘해랑학교다. '늘해랑'은 '늘 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장애로 인한 제약을 넘어 장애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늘해랑학교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4명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지적장애 2~3급 친구들로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1대1 또는 1대2로 짝을 맺어 30여명의 청소년들이 2주간 함께 활동하게 된다.

처음엔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쭈뼛쭈뼛해 하지만, 며칠 지나면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진다. 전담 강사가 제발 조용히 활동하자고 부탁할 정도로 수다 떨고 친구처럼 동생처럼 스스럼없이 대하며 즐겁게 지낸다. 올해는 유난히 '열쇠'와 '볼펜'에 애착을 갖고 있어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두 단어를 더 자주 외치던 10살 환희가 끝날 즈음 선생님 성대모사를 그럴 듯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늘해랑학교는 짧은 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늘해랑 친구들이 즐거운 2주를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2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늘해랑 친구들과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이다. 늘해랑학교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다. 보통 1대1을 기준으로 자원봉사자를 섭외하는데, 늘해랑학교 친구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험 많고 노련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 교육마다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를 한 뒤 늘해랑학교가 시작된다.

올해는 요리실습과 클레이아트, 동화구연 등 실내 프로그램과 야외 물놀이, 극장 나들이, 에버랜드 나들이 등 야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실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들은 한결같이 늘해랑 친구들을 반겨주며, 적은 강사비지만 세종이나 서울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다. 늘해랑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을 느낀다. 간혹 공격성이 있거나 일탈행동이 잦은 친구들도 있어 항상 긴장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늘해랑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로그램 기간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매일 그



에버랜드 나들이에 나선 늘해랑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



늘해랑 친구들이 평택YWCA에서 활짝 웃고 있다.

다음날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다는 학부모들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맛(?)으로 중·고등학생 때 봉사활동을 시작해 대학생이 되어서도 방학마다 자원봉사를 오는 친구들이 많고, 사회복지 전공이나 교육 분야로 진로를 결심한 친구들이 꽤 된다.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에 더욱 깊어진 이해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잦은 돌발 행동이나 절제가 안 되는 행동으로 실무자와 봉사자들을 고생시켰던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자라 한결 의젓해져 참여하고, 본인보다 어린 대상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볼 때마다 놀라고 감동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으나...

사실 수년간 늘해랑학교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족한 예산도 그렇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하다 보니 친구들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차량 제공이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사유로 여러 번 포기하려고도 하였으나 방학 때마다 보육이 필요한 친구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자원봉사자 모집기간이 되기도 전에 이번에도 참여하겠다고 미리 연락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 무장되어 늘해랑학교만은 YWCA에서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사님들을 생각

하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곤 한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러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손길 중에는 지역사회의 직간접적 동참도 포함된다. 평택 지역에는 현재 3개 기관에서 늘해랑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평택YWCA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전체 신청자의 65% 이상 몰리기 때문에 꼭 운영을 맡아줄 것을 당부하며 전담 강사와 같은 인적 자원을 연계해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늘해랑학교의 중요성을 모두 인정하기에 교회와 청소년 단체와 시설, 개인사업체 등도 무료대관과 같은 시설제공이나 간식 후원 등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바람이 있다면 늘해랑 친구들이 더 쾌적한 시설에서 더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택 YWCA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고,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해랑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시원양(세종대 1학년)은 늘해랑 친구들이 웃을 때 봉사자들도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원이의 말처럼 늘해랑학교에서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며 늘해랑 친구들이 더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세계 수준의 성평등 헌법으로 바꾸자

제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위한 닳이 오른 가운데 시대정신에 맞게 성평등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YWCA와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8월 21일, 9월 12일 '성평등 헌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YWCA연합회가 후원한 1차 토론회 주제발표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의 제안을 신는다.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사는 집으로 비유된다. 그렇다면 개헌은 국민의 집인 국가의 바탕을 다듬어 다시 세우는 일이다. 국민의 집을 고치려고 할 때 우선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성평등과 남녀동수라는 21세기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은 눈부시게 변하고, 기여는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헌법에서 여성은 여전히 보호대상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의 권리도 성별 차별금지라는 소극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정신과 민주주의를 반영한 헌법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정치·경제·가족·고용·노동·복지·재정 등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국제인권 기준의 성평등

성평등 헌법은 국내 30년 전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인권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제인권 기준은 한결 같이 성평등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 인권에 대한 원칙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도 가입국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한국은 1984년 인준). 국가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에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정치와 공적 영역에서도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며, 교육에서의 평등은 교육기회와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남성과 여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고용과 노동권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직업선택권부터 승진,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조건에서 평등하며, 결혼이나 모성을 이유로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다. 결혼과 가족관계, 재산관계에서도 부부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성평등은 주요 목표의 하나다. SDGs는 성평등 달성과 성과 소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정치·경제·공직생활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법 채택을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YWCA와 성평등

세계YWCA는 2015년 제28차 YWCA 세계대회에서 채택한 '비전과 2035목표'를 통해 성평등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한 YWCA 목표와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YWCA의 비전은 여성들의 리더십에 의해 정의, 평화, 건강, 인간존엄성, 자유, 그리고 환경보전이 지속되고 증진되는 포괄적인 세계를 지향한다. 세계YWCA는 모든 인류의 평등한 가치를 인식한다.

2035년을 향한 담대하고 혁신적인 목표

2035년까지 10억 명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은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YWCA를 주도하면서 정의, 성평등, 폭력과 전쟁 없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힘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성평등

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가 같은 권리와 책임, 기회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YWCA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은 성차별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게 한다. 2035년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가치를 가지며, 여성과 남성이 의사결정에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차별철폐를 통한 실질적 평등으로

여성계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담은 '헌법 제15조'의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①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성평등 헌법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여성인권 원칙, 지속가능개발목표 등 국제인권 기준에 기초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을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결과의 평등뿐 아니라 기회와 과정의 평등도 담아내야 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철폐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까지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 헌법은 여성의 권리증진을 넘어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통한 실질적, 총체적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30년 만에 시작된 헌법 개정. 여성들이 주체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진일보한 세계 수준의 성평등 조항을 충실히 담은 든든한 '새로운 집' 단장의 역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헌법 제 15조를 신설하라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의 참여 속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촛불광장에 올려 퍼졌던 '국민주권 국가'에 대한 염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 개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의 주제로 여성이 나서야 함을 뜻한다.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인 여성차별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에서 성평등 헌법은 출발한다.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첫 번째 시대정신이 평등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안은 평등권을 강화한 가운데 국가의 성평등 의무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설 15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 신설 제15조

①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과 적극적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성평등 보장 영역을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으로 명시함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 국가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 의무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의무를 명시함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혼인과 가족의 성립에 있어 다양한 결합과 다양한 가족을 인정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 내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제한하는 '모성의 보호'를 '출산·양육 지원'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임신 및 출산·양육에 대한 보호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일 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로서 권리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책개입 여지를 확보함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가족 친화적인 노동환경 및 문화조성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사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부여함

현행

第32條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僱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第34條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YWCA 역사는 회원운동체 청산할 과제도 되돌아보아야

이번 호에서는 2016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나란히 공로상을 받은 이종경·김은경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을 8월 29일(화) 연합회 회장실에서 만났다. YWCA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도자에게 주는 공로상을 받은 분들답게 모두 YWCA와 50년 넘게 함께하고 있다.

대담 **백혜진**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장
 글·사진 **김수진** 대학·청년Y 간사 **신미희** 홍보출판팀 부장

박에스터 선생의 예수님 향기

YWCA와 반백년을 함께하고 있는데 첫 인연이 궁금합니다.

이종경 ▶ 기독교단체에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마침 YWCA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제 발로 찾아갔어요. 박에스터 선생님이 맞아주셨는데 그날 저녁 비서로 채용됐고요. 행정을 배우고, 세

계YWCA 영어보고와 국제친선을 맡고 프로그램 업무에도 관심 갖게 해주셨어요. 밤늦게까지 열정을 다해 일했죠. 그렇게 55년간 YWCA와 함께했습니다.

김은경 ▶ 대학교 1학년 때 대학Y에 들어갔고 Y-틴 지도를 맡았습니다. 이후 서울YWCA Y-틴 간사로 채용되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Y-틴은 '내 아이들' 같아요. 제일 열정적으로 했던 게 Y-틴 간사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청년의 날로, 매주 금요일은 Y-틴의 날로 서울YWCA 회관을 개방했어요.



백혜진 홍보출판위원장, 김은경 위원, 이종경 위원(왼쪽부터)이 YWCA 청년성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에스터 선생님과 오래 일하셨는데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인지요?

이종경 ▶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늘 우리들을 일깨워 주려 했고,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몸에 배어 있던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 ‘나를 키워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겸손하셨어요. 정말 YWCA 정체성에 적합한 분이었습니다. 연령이 있었지만 젊었고, 신앙이 깊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지도력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가장 많이 풍긴 분이었습니다.

청개구리, 아나바다 등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였는지요?

김은경 ▶ 젊어서 그랬는지 어른들이 우려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웃음). 서울YWCA 휴게실을 청소년들에게 주자고 했고, 결국 설득해 ‘청개구리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죠. 청개구리처럼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젊은 이들이 마음껏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란 뜻이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예술인 안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낀 어른들이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주었어요. 콘서트를 열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가건물이라서 안전문제로 1년 뒤 그만하게 되었죠. 어린이 학교급식 청원, 장애인공간 표시, 공공근로, 아나바다 운동도 굉장한 활동이었어요. 공공근로사업도 YWCA가 처음 했어요.

더불어 일하는 자원지도자, 실무활동가

두 분 모두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퇴임하셨는데 재임시 보람 있는 활동을 꼽는다면?

김은경 ▶ 연합회 간사였을 때가 더 기억에 납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진출 교육, 어린이철학교실과 역사강좌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지금도 Y-틴이나 청년들이 인문, 철학교육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

는 게 필요합니다. 본질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종경 ▶ 간사 시절 마지막으로 맡은 바른살실천운동은 사무총장이 되어서도 이어갔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365일 기도, 대학생들의 스터디 투어, 임신으로 배가 불러도 산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달곤 했던 ‘푸른 삶 푸른마음’ 환경운동도 생각납니다. 역사는 바로잡혀야 한다는 울분으로 일본 교수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며칠을 앉아서 편지 쓰던 게 기억나고요.

YWCA를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종경 ▶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계속 있냐고 물을 때 ‘한 달에 하루만 기분이 언짢지 나머지 항상 행복했다’라고 대답합니다. YWCA 이상인 곳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아침 예배마다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를 다져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경 ▶ 대학생부터 YWCA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일터로 삼았지요. 근사한 YWCA회관과 세련된 간사들을 보며 동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사람관계로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몸담고 있습니다. YWCA 매력 중 하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고, 늘 발전적인 고민을 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월급의 ‘마음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았죠(웃음).

실무활동가와 자원지도자의 역할변화를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시는지요?

김은경 ▶ 예전엔 간사와 위원회, 자원지도자와 실무활동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른살실천운동, 소비자운동 등은 자원지도자와 실무활동가들이 하나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소비자운동은 자원지도자가 없었으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종경 ▶ YWCA에서 일했던 분이 ‘박에스터 선생님



이종경 위원이 박에스터 선생님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 김은경 위원이 간사와 사무총장 시절 활동을 회고하고 있다.

은 위원과 간사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쌍두마차라고 늘 말씀했다. 구별없이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라는 것이었는데 귀찮게만 생각했다. 위원들은 몇 번 나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별로 도움 받지 않는다고 여겼다. 다른 단체에 가보니 혼자 일하는 것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도 자원지도자가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출석이었습니

‘청년성’ 말만 하지 말고, 물질과 공간도 줘라

YWCA는 회원운동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데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종경 ▶ 회원운동체로서 YWCA가 약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다루는 운동단체로서 약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회원YWCA가 ‘Y정신’을 살릴 수 있는 운동체로서 역할을 잘 세워나가

김은경 ▶ 지원사업을 늘릴 것인지 아닌지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YWCA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회원운동체의 모습입니다. 지금 회원운동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회원이 회원을 모집

해오는 자발적 회원이 많았습니다. 서울YWCA가 서울동네마다 클럽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지도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나올 구조가 없죠. 회원운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YWCA가 젊어지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김은경 ▶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계획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모일 것입니다. YWCA도 청년에 관심이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물질도, 공간도, 결정권도 내주어야 합니다. 연합회 실행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들어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조직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종경 ▶ 지금 청주YWCA가 청년조직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는 경우입니다. 독특한, 대학생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922 장학금은 잘 시작했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YWCA의 비전과 기대가 있다면.

이종경 ▶ 제 버킷리스트는 기도운동이 YWCA의 출발이 되는 것, Y-틴과 대학Y를 살리는 것, 북한YWCA재건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00주년에 회원들의 버킷리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제안합니다. Y-틴 때부터 씩 크머니 교육을 하고, 기부문화로 이어져 회원들의 손으로 재정을 충당하길 바라요. 국내외 흩어진 YWCA 가족들이 상봉하는 홈커밍데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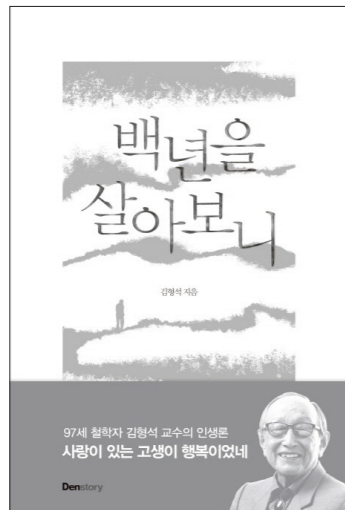
김은경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전쟁을 막을 길은 남북통일밖에 없습니다. 100년이 되면서 우리도 몸집이 커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청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듬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YWCA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YWCA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의탁한 백년의 삶

김형석 교수의 <백년을 살아보니>, <예수>

백수경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인제대 이사



백년을 살아보니 | 덴스토리 | 15,000원



예수 | 이와우 | 15,000원

신앙이 필요 없었다던 친구가 건넨 책

‘인생의 황금기는 60~75세’ 책의 뒤표지에 있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이 간다며 친구가 김형석 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를 생일선물로 주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래 전부터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유해도 ‘난 아직 신앙이 필요 없다’며 거절해 온 이공계 출신 전문경영인이었기에 독실한 기독교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책에 감동했다니 좀 뜻밖이었다.

‘백세인생’, ‘백세시대’, ‘내 나이가 어때서’ 등의 가요가 인기를 끄는 현상에서 보듯이 90세는 조기 사망이고, 100세를 넘어 120세를 바라보는 초고령화 사회

로 치달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21%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 평균수명은 이미 85세를 넘었다.

정년을 앞둔 원로교수로부터 “아버지가 구십까지 사셔서 나는 백 살을 넘길 듯싶어 앞으로 30여 년간 무슨 일을 하며 지낼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재미있다. 우연히 일본 텔레비전에서 100세 이상 살아온 노인들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백년을 살아오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내가 칠십일 때 백 살 이상 살 줄 모르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 30여 년을 허비

한 것”이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 했다는 것이다.

한번은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나이 지긋한 기사가 “새택 어디 가요?”하는 것이 아닌가? “저 새택 아닌데요.”했더니 “아직 육십 이전이지요? 그러모 요새는 새택이래요. 육십에서 팔십은 아지매, 팔십 넘어야 할때요.” 맞는 말이라고 웃으며 맞장구친 일이 있다.

공부하고 일하면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백년을 살아보니>에 소개된 일본의 여론조사 내용도 흥미로웠다. 60대 중반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물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다. 가족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고 옛 친구들과 때때로 만난 사람들도 그다지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반면, 공부를 새로 시작하거나 취미활동을 계속한 사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누린 이들로 꼽혔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즐겁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가능한 일이다. 나이 들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깊어져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앙금이 쌓이는 것이 나이 들며 겪는 아픔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60세에서 75세가 황금기인 것은 아닐 것이다. 75세까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들에게만 그렇다고 저자는 말한다. 40대라도 공부와 일을 포기하면 늙스는 기계와 같이 노쇠하게 되고, 60세 이상이어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백년 가까이 살아 온 저자의 경험담이며 지론이다. 70대 후반이 되어 성장이 어렵게 되면 그때는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것으로 힘닿는 대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손아래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존경받는 노년기 인생이 되는 길이라 믿는다는 구절에 저절로 머

리가 숙여졌다.

이 책을 단숨에 읽고 저자의 다른 저서를 검색하다가 <예수>라는 책을 발견하고 당장 사서 읽었다. <예수>는 4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기록된 내용대로 살펴본 책이다. 이야기는 예수가 세례자 요한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을 시작으로 시간 순차대로 전개되고 있지만 저자는 4복음서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의 말 한 마디, 몸짓 하나 하나에 스며든 뜻을 세밀하게 건져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신앙을 점검해보고 싶은 이가 있다면 일독을 권하고 싶다.

나이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으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더해갈 수 있는 길, 그리하여 존경받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해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신앙이 답이었다.

예수를 닮기 위한 노력에 행복이 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시간이 왜 이리 빠르게 가는 거지?” 하며 쓸쓸해질 수 있는 가을을 맞아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김형석 교수의 책들을 읽으며 까칠한 내 친구도 곧 신앙을 가질 듯한 느낌이 들어 반갑고 감사했다.

<백년을 살아보니>에는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아 절로 웃음 지으며 즐겁게 읽게 되는데, 그 중 한경직 목사의 부부싸움 피하는 법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친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으나 60이 넘어서는 안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비결은 간단했다. 한 장로의 얘기다.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서면서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의 안색을 먼저 살펴본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라면서 인사를 대신한다. 사모님이 ‘내가 뭐라고 했소?’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내래 잘못했다는 거지요’라면서 또 사과한다. 그러면 사모님은 말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였다.”

9월 월례아침기도회



9월 1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9월 월례아침기도회가 열렸다. 안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경쟁의 그늘'을 주제로 엘리트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도 경쟁사회 적응을 강요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고통 받는 약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하반기 장학금 수여

연합회는 2017년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활란기념 장학금은 이서영(수원 하이텍고교) Y-틴 전국 협의회장, 손메리·손인실 장학금은 최선화(남서울대학교) 대학·청년Y협의회장, 고의순나눔기금 장학금은 남원YWCA 김우경(남원서진여교), 양지혜(남원여교) 학생에게 각각 전달했다.

YWCA 활동가 특강



연합회는 7월 24일(월)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YWCA 활동가를 위한 특강을 열었다. 강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지만 시대의 징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대화된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의 참뜻을 되짚었다.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17년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8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제주대학교, 탐나라공화국 등에서 열렸다. 지역위원회 모임, 2018~2019 YWCA 중점운동 정책협의회에 이어 MBTI로 살펴본 활동가들의 리더십, 인사노무 과제 등의 특강을 들었다. 영화 '어폴로지' 관람으로 여성평화운동을 돌아보고, 제주남이섬 탐나라공화국을 탐방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활동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YWCA도 본격적인 대

응활동에 들어갔다. 8월 2일(수) 공론화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열었고, 회원YWCA 실천활동으로 전단지 10만부와 카드접지 1만부를 제작해 지역 교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전국동시 정오기도와 현수막 설치, 탈핵캠페인, 전국 집중행동(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 등을 펼치고 있다.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지원 모니터링 중국 방문



2014년 이후 2년 7개월간 중단된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전달이 8월 9일(수) 중국 단둥에서 재개되었다. 이번 전달식에는 장미란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배정미 국장, 협력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 실무자가 참석했다. YWCA는 앞으로 1년간 2톤 가량 분유를 매달 나눠 평안북도 165개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5차포럼

95주년 기념사업인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준비를 위한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5차포럼이 9월 14일(목) 연합

회 강당에서 열렸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이 '북한 정치와 경제, 우리의 미래' 강의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YWCA 등 평화협정 체결 촉구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YWCA를 비롯한 94개 여성단체와 여성평화걷기(WomenCrossDMZ)는 7월 27일(목)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성평등 헌법 릴레이토론회



제10차 개헌안의 성평등 헌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1차 릴레이토론회가 8월 21일(월)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연합회가 후원하고 서울YWCA,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개정과 여성시민의 참여'라는 주제 발표를,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

장과 임주현 안산YWCA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차 토론회는 9월 12일(화) 국회에서 열렸다. (자세한 내용은 32~34쪽)

청년기자단 '청년의 날' 현장취재



청년기자단 3기가 8월 19일(토), 9월 2일(토)에 각각 정기모임을 열고 언론특강, 현장취재 활동을 벌였다. 9월 2일엔 국회 마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에 현장취재로 참여했다.

씽크머니 경제교육관리위원회 발표

금융생활체험교실 '펍핀(PUB-FIN)' 오픈으로 씽크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함희경 연합회 씽크머니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월 6일(수)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서 씽크머니 사례를 발표하고, YWCA와 지역경제센터 협업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협의회

2017년 제2차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협의회가 9월 15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2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일자리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주제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장이 강의를 하고, 직업훈련 동향을 공유했다. 전국 52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중 회원YWCA가 26개를 운영하고 있다.

2017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YWCA를 비롯한 11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소비자’라는 주제로 8월 25일(금)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7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를 열었다.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전과 미션발표, 소비자운동가 다짐 선언,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되었다. 박진선 서울YWCA 간사가 ‘소비자운동가 도전골든벨’에서 1위를 했다.

소비자연구 스페인 교수 방문



동아시아 소비자 분쟁조정 연구를 위해 방한한 스페인 발렌시아대학 아나 이사벨 블랑코 가르시아(Ana

연합회 소식 9월

Isabel Blanco Garcia) 교수가 한국 소비자운동의 모태인 YWCA를 추천받아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8월 16일(수) 한국YWCA연합회를 방문

했다.

故 고의순 의원 1주기 추모예배

故 고의순 은학의 집 운영위원 1주기 추모예배가 10월 10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다. 고 의원은 2016년 8월 전국회원대회와 한일YWCA협의회 통역봉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40주년

이명혜 연합회 회장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위촉 2017.9

지정기부

연변민들레교류협회 지원

목포YWCA 2천만원
서희전·홍인숙 위원 5백만원

인사

사직

삼선미 간사(복지사업단) 2017. 7. 31
이기원 간사(홍보출판팀) 2017. 8. 16
채용 문윤희 간사(홍보출판팀) 2017. 8. 21
황정아 간사(복지사업단) 2017. 9. 1
손지수 청년인턴(홍보출판팀) 2017. 9. 1

신간 안내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물의 세계 박은경 저



양철북 1만7천원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이자 동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박은경 연합회 실행위원이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한국 유치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펴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일화와 함께 드라마 처럼 펼쳐진다. 9월 21일(목)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북콘서트가 열린다.

배움에 관하여 강남순 저



도서출판 동녘 1만6천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튼신학대학원 교수가 평범한 일상에서 얻은 배움을 기록한 91편의 글을 추려 첫 에세이를 펴냈다. 인문학 배우기 열풍이 거센 한국 사회에서 강남순은 익숙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뒤엎는 내면의 불편함과 좋은 질문을 수반하는 것이 배움이라고 강조한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17. 7. 1~8.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회원YWCA 부속시설	남양주YWCA, 목포YWCA, 부산YWCA, 서울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창원YWCA, 천안YWCA, 군산직할지부, 은학의 집	3,710,000
개인 기부	김윤익, 김형철, 공진희, 김경희, 김병대, 김서연, 김수연, 김영자, 김재민, 김재희, 김정희, 김진용, 김혜연, 박 선, 박은혜, 백 선 신, 신 신숙, 안성민, 안은주, 이재열, 윤수정, 이은경, 이천진, 이현나, 이현식, 이현재, 임경숙, 장현옥, 정 미, 정서연, 정애화, 지순경	500,000
합계		4,21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7. 1~8.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예린,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 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성은, 김선형, 김수연, 김수진, 김애연, 김영자, 김영희,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재민,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대연, 남화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인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정민, 배한솔, 배한울, 백정미, 백보람, 백정미,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선미,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영선, 윤수정, 윤정보,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현희, 이천진, 이현자, 이화숙, 이화정, 임강숙,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조인식, 채정희, 최수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숙,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3,956,000
회원YWCA	인천YWCA, 홍주YWCA	1,180,960
개인 기부	김난주, 박영순, 심선미, 오경선, 임국아, 최혜실	582,640
협력교회	기쁜소리교회, 약진명강교회, 하늘기독교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490,000
기관, 단체	마포구 신수동 주민자치센터, 마포구구정기독교교회, N-농협은행(명동지점), 르베르(명동성당지점), 명성약국, 일마루, 에세레, 젤리(명동지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지점)	361,010
합계		6,57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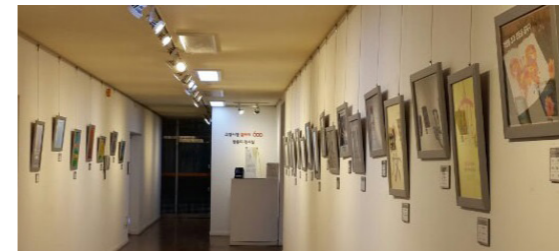
회원YWCA 소식 9월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양성평등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고양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의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 제1회 고양시 양성평등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했다. 일상 속 성차별 개선,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를 주제로 40편이 응모했다. 수상작은 8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고양시청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광명YWCA

김진희 간사

'양성평등'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광명YWCA는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과 성폭력예방 정보를 제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동·하계 자원봉사학교를 열고 있다. 올해는 7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광명YWCA 교육실에서 '양성 특(Talk) 특(Talk)', '마음 특(Talk) 특(Talk)' 프로그램의 하계 자원봉사학교를 진행했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지역아동센터 '핑크머니' 진행

남양주YWCA는 지역아동센터 세 곳을 선정해 청소년 경제교육 핑크머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8월엔 진광



지역아동센터에서 핑크머니 수업을 마쳤고 나머지 두 곳은 진행 중이다. 청소년들의 경제관념을 바로세우고 올바른 소비와 저축을 게임, 체험방식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통일문화제 체험부스 운영



부천YWCA는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화) 부천시청에서 열린 부천시민 통일문화제에서 '북한말 퀴즈&평화 손수건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많은 시민들이 퀴즈와 손수건 만들기에 참여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내가 GREEN 지구' 꿈의 학교



수원YWCA는 8월 8일(화) '내가 GREEN 지구' 꿈의 학교를 열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첫날 개교식에는 학생, 학부모 3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에너지드림센터 등에서 자원순환과 적정기술의 이론 및 체험, 에너지 캠페인 등 학습활동을 벌이게 된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청소년 성평등 수다클럽



안산YWCA는 8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청소년들의 성평등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톡! Talk! 청소년 성평등 수다클럽'을 진행했다. 성인지 관점과 청소년 인권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겪는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경험 등을 나눴다. 청소년들은 직접 기획한 '다(多)가치 청소년 성평등 토크쇼'를 진행하고,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안양YWCA는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제14회 경기도 에너지의 날 사무국을 맡아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행사를 8월 22일(화) 안양평촌중앙공원에서 열었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선보인 이번 행사는 에너지전환 시민실천선언문 낭독, 자

전거 발전기 슬로건 점등, 별빛콘서트, 5분간 소등 등이 펼쳐졌다.

의정부YWCA

정진아 부장

'청소년 인권' 자원봉사학교



8월 1일(화)부터 3일(수)까지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학교 '인권에 나이는 없습니다'를 열었다. 의정부YWCA Y-틴 청소년 55명이 참여해 인권이슈 토크로 공감대를 만들고 성인권, 학생인권, 참정권, 노동권의 주제연구를 했다. 카드뉴스와 동영상 제작, 플래시몹과 거리캠페인도 진행했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Y-틴 키다리학교 '면생리대 만들기'



Y-틴 청소년들이 키다리학교 활동으로 8월 12일(토) 직접 바느질하여 면생리대를 만들고,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 생활실천을 다짐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거제YWCA 키다리학교에는 중·고등학생 12명이 참가하고 있다.

김해YWCA

권종숙 팀장

지역 여성일자리 발굴 교육



7월 26일(수)부터 10월 25일(수)까지 일·가정 양립과 지역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한 취업예비교육 'WIN WI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특강 등을 지원한다. 한편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가 7월 13일(목) 주최한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김해YWCA 김성근·서춘화 이사,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황봉화 목사가 시장 표창패를 받았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신천 정화활동



대구YWCA와 대구백화점은 8월 26일(토) 깨끗한 신천을 만들기 위한 정화활동에 나섰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깨끗한 신천 만들기'는 쓰레기를 줍고, EM흙공을 만들어 던지는 활동으로 이뤄진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도 하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인기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어린이경제교육 페스티벌

마산YWCA는 8월 24일(목) 강당에서 마산YWCA어린이



이집 아동 7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경제교육 페스티벌 '생생경제배움터'를 진행했다. '올자람(옳고 빠르게 자람) 방학교실'에 참여 중인 초등학생이 부스운영을 맡아 뜻을 더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2017년 이사 연수



울산YWCA는 8월 21일(월) 경주 켄싱턴호텔에서 이사들을 대상으로 영성교육과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현숙 연합회 지역협력관 강의로 YWCA 목적을 이해하고, 현장 분석으로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진주YWCA

김태진 간사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제1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18일(금) 밤 9시부터 평거동 엠코더프라하 입주민과 함께 5분 소등행사를 진행했다. 입주세대 75%가 동참했으며 자가 발전기를 이용한 주스 만들기, EM 천연비누 만들기, 탈핵홍보, 별빛

음악회 등도 진행되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의 진주YWCA 소등행사는 민관협력네트워크 '푸른진주21'이 후원했다.

진해YWCA

김미영 팀장

푸른 꿈이 있는 교실



진해YWCA는 건강한 가정 활성화를 위한 '푸른 꿈이 있는 교실' 에코 체험학습으로 8월 11일(금) 밀양 참샘 허브나라를 방문했다. 초등학교생 등 35명이 참가해 허브농원 관람, 양초와 문패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창원YWCA

정혜경 간사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창원YWCA는 8월 26일(토) 기업사랑 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환경과 에너지문제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시인가수 우수부 부부, 남성합창단 등이 공연을 펼쳤다. 시민 환경퀴즈도 진행되었다.

통영YWCA

이정숙 부장

청소년 소비자교육

통영YWCA는 7월 29일(토) '합리적인 소비습관'이란 제목으로 청소년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청소년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신중한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살림돌보미 양성과정



포항YWCA는 8월 21일(월) 고령자인재은행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살림돌보미 신입교육을 진행했다. 살림돌보미 이론부터 서비스 마인드, 세탁관리, EM활용 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



강릉YWCA는 8월 17일(목) 강릉시청, 강릉경찰서와 함께 경포해수욕장 주변에서 안전한 청소년 환경조성을 위해 유해업소와 불법광고를 단속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동해YWCA

전민지 간사

두려움을 다함께 극복! 캠프



동해YWCA는 8월 2일(수)부터 3일(목)까지 정선에서 Y-틴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두려움을 다함께 극복! 캠프'를 열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하트하트로 공감하기, 공감워크숍 도도리, 우리별 이매진, 공포체험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타인 감정 이해하기의 중요성을 나눴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협약



서울YWCA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8월 29일(화) 서울YWCA 회관에서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상호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해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했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광복절 희망음악회

원주YWCA 어린이합창단과 원주시 장애인부모연대 청소년양상블은 8월 15일(화) 원주AK 플라자광장에서 '광복절 희망음악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



번 공연을 위해 두 단체 청소년들은 함께 연습하며 실력을 쌓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공연을 보여줬다.

인천YWCA

김화연 간사

한·중·일 청소년행사 체험부스



인천YWCA는 7월 29일(토)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 한마당'에서 천연 EM탈취제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 한마당'은 한국 인천시, 중국 베이징시, 일본 이바라키현이 해마다 돌아가며 여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인천시가 주관했다.

춘천YWCA

경소희 간사

아기돌보미 교육

8월 21일(월)부터 31일(목)까지 아기돌보미 교육을 실시했다. 20여명의 예비 아기돌보미들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취업에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다. YWCA 소개, 기본 직업윤리, 사례별 아동케어 방법 등 전문성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초등학생 소비자교육

광양YWCA는 8월 10일(목) 광양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초등학생 40여명에게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용돈을 갖고 소비를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소비자피해 예방과 대응방안, 건전한 소비생활 등을 교육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2017 직원연수



광주YWCA는 8월 26일(토) 충남 보령 무창포에서 직원연수를 진행했다. 본부와 산하시설 직원 80여명은 YWCA 실무자로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것과 직권간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다. 레크리에이션으로 친교를 다지면서 물놀이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캠프

남원YWCA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남원시 15개 지역아



동센터가 모여 8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1박2일간 여름 물놀이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파이어, 숲 체험 등으로 아동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여성친화 공간으로 개선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목포YWCA가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후원하는 공간문화개선사업에 선정돼 2층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리실로 사용했던 공간을 개선 후 돌봄 근로자,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아동복지 교사, 프리랜서 여성들의 중간거점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바꾼다. 9월 공사를 거쳐 10월 중 오픈될 예정이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평화로 만드는 반짝이는 밤하늘



여수YWCA는 8월 22일(화) 이순신광장에서 제14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열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평화로 만드는 반짝이는 밤하늘'이란 슬로건으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선보였다. 탈핵과 에너지절약 퀴즈, 행운권 추첨도 진행했다. 3개 호텔과 주변상가 등이 5분 소등행사에 참여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동아리 구성



서귀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8월 9일(수)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을 지키는 동아리 '청·만·세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를 구성했다. 청만세는 지역 유해환경 모니터링, 청소년보호법 관련 홍보물 배포, 청소년축제 캠페인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YWCA

추효인 간사

스마트에너지 페스티벌



순천YWCA는 제1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화) 순천버드내공원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 페스티벌에서 '알록달록 손부채 만들기'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순천YWCA를 포함한 10개 시민단체가 공동주관하고, 순천시가 주최했다. 백일장, 사생대회, 만화실기 대전, 대학생 제로에너지 경연대회, 천연 모기 기피제 만들기, 에너지 절약 약속하기 등이 펼쳐졌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한빛 4호기 대책 촉구

전주YWCA는 8월 24일(목) 전라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북



도민행동' 출범식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한빛 4호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사회관심을 높이고 백지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북탈핵연대와 함께 9월 1일(금) 전주 효자동 KT사거리에서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평화아카데미 '헌법'



제주YWCA는 8월 4일(금)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2017 평화아카데미 제주지역 제6강을 열었다. 작가인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헌법'이란 주제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역사, 개정 쟁점 등을 강의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이사·위원 연구모임



논산YWCA는 7월 24일(월)레이크힐 연회실에서 이 사·위원 연구모임을 열었다. 자원활동가로서 YWCA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 '영상으로 만나는 Y운동', 남윤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교육국 장의 '탈핵생명 먹거리' 강연이 진행되었다.

대전YWCA

이다정 간사

탈북·이주여성 사회참여 포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6일(목) 대전YWCA 회관에서 '탈북여성·이주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22회 대전여성포럼을 열었다. 대전YWCA는 이번 포럼을 위해 탈북여성 90여명과 이주여성 2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110여명이 참석해 탈북여성·이주여성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제공, 정착 여건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농식품 스마트소비 교육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실천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세종YWCA는 7월 28일(금)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시민 25명에게 요리체험을 포함한 식품선택 기준을 교육했다. 다음 교육은 로컬푸드와 제철농산물 소비촉진을 주제로 10월 13일(금) 진행된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초등학생 초록환경교실



제천YWCA는 8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초등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초록환경교실을 열었다. 기후변화 교육을 시작으로 태양광 장난감, 친환경 에코백, EM발효액, EM비누, 다육화분 만들기를 했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5분간 전등끄기

천안YWCA는 제1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화) 두정동 극동늘푸른아파트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캠페인을 열었다. 5분간 전등끄기, 자전거 발전기, EM세제와 천연비누 만들기, 부채 제작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지원 모금활동도 벌였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청청패션 인권영화제



8월 26일(토) 청주 롯데시네마 성안점에서 청주YWCA 청청패션(청소년과 청년의 Passion) 인권영화제를 열었다. Y-틴과 청년Y가 작품 선정부터 기획, 진행을 맡은 이번 영화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열, 눈길, 4등등 3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미열' 상영 후에는 박선주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응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7(장학위원회)

후원에 참여한 분들(2017. 7. 1~8.31)

감윤익, 감형렬, 공진희, 김경희, 김병대, 김서연, 김수연, 김영자, 김재연, 김재화, 김정희, 김진용, 김혜연, 박 선, 박은혜, 백 선, 신 선, 신승욱, 안성민, 안은주, 안재열, 윤수정, 이은경, 이천진, 이한나, 이현석, 이현재, 임경숙, 장현옥, 정 미, 정서연, 정애화, 지순경, 남양주YWCA, 목포YWCA, 부산YWCA, 서울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창원YWCA, 천안YWCA, 군산직할지부, 은학의 집

